

#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손영기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도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국내 금융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금융 기관들은 금리 자유화, 금융 산업의 해외 개방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에 의한 연쇄 부도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도산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국내 금융 산업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금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 산업의 전략적 의미와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국내 금융 산업의 현황

국내 금융 산업은 60~70년대에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양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거듭하였다. 한 국가의 금융 산업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 연관 비율(Goldsmith Ratio, 금융 자산 잔액/경상 GNP)은 1980년의 2.40에서 1990년에는 4.07로 2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7년 2/4분기 현재 5.77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금융 부문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데는 정부의 금융 다원화를 위한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70년대 이후 금융의 다원화를 위해 은행과 같은 통화

〈표 1〉 국내 금융 연관 비율 추이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6
2.17	2.39	3.28	4.18	5.26	5.77

자료: 한국은행, 「자금 순환」.

주: 일본의 금융 연관 비율(1995년: 8.43), 미국의 금융 연관 비율(1995년: 7.22).

금융 기관 이외에 비통화 금융 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였고, 새로운 업무 및 금융 신상품 개발을 허용하였다. 금융 기관 별 성장 현황을 예수금 비중으로 본다면 비통화 금융 기관의 성장이 통화 금융 기관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 기관 전체 예수금에서 예금 은행의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70.2%에서 1996년 현재 27.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

면, 비통화 금융 기관의 예수금 비중은 1980년의 29.8%에서 1996년에는 72.4%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비통화 금융 기관 가운데서도 은행신탁,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등의 저축 기관의 예수금 비중은 크게 확대되어, 저축 기관의 예수금 비중은 1980년의 13.8%에서 1996년에는 44.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금융 산업의 양적

〈표 2〉 금융 기관별 예수금 추이

(단위: 조 원,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1995	1996	
예금 은행	0.8 (85.7)	2.8 (78.9)	12.4 (70.2)	31.0 (53.7)	84.1 (39.8)	135.2 (29.2)	154.1 (27.8)	181.7 (27.6)	
	일반 은행	0.6 (60.2)	1.9 (54.6)	7.8 (43.8)	18.1 (31.4)	51.2 (24.2)	80.1 (17.3)	110.3 (19.9)	131.0 (19.9)
	특수 은행	0.3 (30.5)	0.9 (24.3)	4.7 (26.4)	12.9 (22.3)	32.9 (15.6)	55.0 (11.9)	43.8 (7.9)	50.7 (7.7)
비통화 금융 기관	0.1 (14.3)	0.7 (21.1)	5.3 (29.8)	26.8 (46.3)	127.2 (60.2)	327.4 (70.8)	401.0 (72.2)	475.9 (72.4)	
	개발 기관	0.0 (3.3)	0.0 (0.8)	0.1 (0.8)	0.2 (0.4)	1.2 (0.6)	1.7 (0.4)	1.8 (0.3)	1.9 (0.3)
	투자 기관	0.0 (0.0)	0.2 (5.5)	1.7 (10.0)	9.6 (16.5)	36.0 (17.1)	79.3 (17.1)	87.5 (15.8)	96.2 (14.6)
	저축 기관	0.1 (8.7)	0.4 (10.9)	2.4 (13.8)	10.3 (17.8)	61.6 (29.2)	189.8 (41.0)	243.1 (43.8)	294.4 (44.8)
	보험 기관	0.0 (2.3)	0.1 (3.9)	0.9 (5.2)	6.7 (11.6)	28.4 (13.4)	56.6 (12.2)	68.6 (12.4)	83.4 (12.7)
총계	0.9 (100.0)	3.5 (100.0)	17.7 (100.0)	57.8 (100.0)	211.3 (100.0)	462.6 (100.0)	555.2 (100.0)	657.6 (100.0)	

자료: 한국은행, 「통화 금융」.

주: ( )안은 예수금 비중을 나타냄.

〈표 3〉 IMD의 국내 금융 부문 경쟁력 지표 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44위	42위	37위	40위	43위

자료: IMD(국제경영연구원)(1997).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0~70년대에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서두르면서 금융 산업이 자금 지원 수단으로만 활용된 반면, 내적인 효율성 제고에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7년에 발간된 IMD(국제경영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금융 부문의 경쟁력은 전체 46 개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의 37위, 1996년의 40위에 이어 국내 금융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국내 금융 시장의 자본 조달 비용, 자본의 활용도, 직접 금융 시장의 발전 정도, 금융 부문의 효율성 등이 미흡한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내 금융 산업의 전략적 의미와 문제점

국내 금융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국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으로써 저금리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 기관이 저금리의 자금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국내 제조업의 금융 비용은 그만큼 축소되면서 성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이다. 금융은 금융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창출 및 분석, 투자 기회의 개발, 위험의 분산 및 흡수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융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향후 금융 산업의 성장없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세계화시대를 열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에 국내 금융 산업의 현실은 경쟁 제고와 세계화라는 의미에서 볼 때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첫째, 세계적인 경쟁 격화 속에서 국내 금융업은 업종간 칸막이 현상이 유지되어 고유 업무에서 이익을 그대로 보호받고 있다. 80년대 이후 신금융 상품의 등장과 신

업무의 허용으로 금융 업종간 업무 영역의 구분이 자회사 형태나 부수 업무의 형태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를 유지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에 금융업간 주 업무가 확실하여, 해당 금융 업종은 고유의 업무 영역 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 업종간 업무 영역의 단절은 금융 기관간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간

〈표 4〉 우리나라 금융 기관별 업무 영역

구분		은행	증권	종합금융	투자신탁	
화폐 시장	콜시장		○	○	○	
	어음 할인 시장	상업어음	●		○	
		기업어음			●	○
	CD		○(발행)	○(매매)	○(매매)	○(매매)
	은행인수어음		○(매출)	○(매매)	●	
환매채						
예금 시장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신탁 시장	금전신탁, 재산신탁		○	○(BMF)	○(공사채)	●
	증권투자신탁					
종합금융 시장	리스		○(자회사)		○	
	팩토링				○	
	벤처캐피탈		○(자회사)	○		
	신용카드		○(자회사)			
자본 시장	주식	발행		●	○(인수)	
		유통		●		
	채권	발행	○	●	○	○
		유통		●	○	
외환		●	○	●		

주: ●는 주요 업무, ○는 부수 업무임

〈표 5〉 제조업 평균 차입 금리 비교

(%)		
한국(1996)	일본(1995)	대만(1994)
11.2	3.6	6.2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단절로 인하여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둘째, 대외 개방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기관들의 생산성 저하로 높은 중개 비용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이 금융 기관을 통해서 차입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미국·일본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높은 금리는 개방화시대에 금융 기관 자체의 시장 영업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개방으로 외국계 금융 기관이 진출하고, 국내 기업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차입을 확대시킬 경우에는 금융권 고유의 업

무인 여수신 업무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고금리는 기업의 차입금 부담을 높여서 오히려 자금난에 의한 기업 부도를 양산하여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 심사 기법이 발달해 가고 이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가는 마당에 국내 금융 산업은 담보 대출 관행과 보증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사업성 위주의 신용 평가 모델 개발, 신용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 마련, 신용 정보의 축적 등으로 신용 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담보 선

〈표 6〉 담보 대출 비중

(%)				
	1991	1993	1995	1996
담보 대출	55.7	51.8	5.8	50.8
신용 대출	44.3	48.2	47.2	49.2
보증부 신용	16.4	18.2	12.7	13.3
순수 신용	27.9	30.0	34.5	35.9
계	100.0	100.0	100.0	100.0

호 경향이 뚜렷하며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담보대출 및 보증제도는 결과적으로 금융 기관의 신용 평가 기능을 퇴행시켜 장기적으로 금융 기관의 고유 기능의 하나인 신용 조사 기능을 도외시하게 되고, 보증인의 파산이 연쇄적인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금융 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다. 정부의 업무 영역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 간여, 은행 소유에 대한 지분 제한 등은 국내 금융 기관이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기관 스스로의 자율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미확립은 은행의 합병이나 인수 등과 같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 정책 과제

현재 국내 금융 산업 내에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의 보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 개혁은 그 논의의 중심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개혁도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상충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많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내 금융 산업이 현재의 취약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경쟁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최근 도산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금융 기관의 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WTO체제 하에서도 정부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여부는 시장 경제 질서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가의 상황 판단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한은 특용과 대출금의 출자 전환,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세 감면 등은 WTO체제 하에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한 부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융 산업 내의 비경쟁적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업무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 금융 산업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국내 금융 산업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단, 업무 영역의 완화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80년대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금융 기관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국내 금융 산업의 체질을 악화시킨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금융 기관의 소유 제한 완화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다. 특히, 국내 금융 기관 가운데 지분 소유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은행의 소유제도에 대한 완화가 시급하다. 외국의 경우에 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금융 기관의 주식 소유 상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는 드물다. 대부분 명시적 규제보다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소유 지분 확대에 따른 대출 편중 문제는 감독 당국에 의한 여신 규제 조치 등 조치를 통해서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비은행 금융 기관 가운데서 투신사와 투자신탁 운용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유 지분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업간 경쟁 격화로 겸업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은행과 비은행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금융 기관의 퇴출에 대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금융 자유화와 대외 개방, 그리고 저성장 기조에 의한 기업 부도로 금융 기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경쟁력이 약한 금융 기관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의 퇴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인수 합병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 기관의 도산에 대비한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 기관 부실 처리 기관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